

전남, 풍력산업에 1조6000억원 추가

5GW 대형 프로젝트 3차 투자협약 ... 지멘스·현대중공업 포함 13사 참여

전라남도의 5GW급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에 1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협약이 이루어졌다.

전라남도는 7월2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지멘스, 현대중공업 등 13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1조6300억원의 5GW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제3차 투자협약식을 가졌다.

발전사업 투자부문에는 현대중공업(5000억원)과 현대건설(6000억원), K-파워(3250억원) 등 3사가, 핵심부품 등 설비공장 부문에는 STX메탈과 탐월드 등 7사가 1450억원을, 터빈설비 부문은 3사가 6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.

3차협약에 따라 발전설비부문 18사에 대한 투자지원금 15조6500억원이 확정됐으며, 터빈부문 4사(3450억원)와 핵심부품 등 설비부문 12사(2370억원)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배분됐다.

전라남도의 풍력 프로젝트에는 현재까지 총 45개 국내외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를 확정했으며, 3차 투자협약을 계기로 8월까지 사업 추진을 주도할 총괄SPC(특수목적법인)를 설립하고 2010년 중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.

또 총괄SPC가 직영하는 5GW 풍력 프로젝트 선도사업 중 육상1차 50MW 실증시험단지를 12월 착공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21>